2019. 8. 6. (화) 언론보도

경인일보

2019년 08월 06일 (화)

종합 04면



5일 오전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DMZ 155마일 걷기' 출정식에서 참가대원들이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개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평화·생명의 ♣D ۗ ₩ 155마일' 첫 발 떼다

*DMZ 155마일 건기' 행사가 5일 오 전 파주 임진각에서 출정식을 갖고, 기 나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경기도가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날 출정식에는 북측과 인 접한 접경지역 지자체 최초로 시행되는 DMZ 횡단 건기 행사를 기념, 신명섭 도 평화협력국장, 유통규 경기관광공 사 사장, 박관열·유영호·민경선 도의 원, 건기대원 100명 등이 참석해 안전 하고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기위했다.

건기 행사는 'DMZ 155마일 평화의 길 을 함께 걷다'를 주제로 국민들에게 생명과 평화가 숨쉬는 DMZ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각인시키고자 마련됐다.

'DMZ 155마일 걷기' 행사는 전국에 서자위해 최종 선발된 건기대원 100명 道, 접경지역 첫 '횡단 건기행사' '강원 고성~경기 파주' 16일 여정 대원들 100명 임진각서 '출정식'

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오라엔테이션 을 실시, 15박 16일의 대장정을 시작할 모든 준비를 끝마쳤다.

도 고성으로 이동해 걷기 일정을 시작 교류를 주제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국방부와 강원도가 후원하는 이번 해 20일까지 강원 인제와 양구, 화천, 철일, 경기도 연천을 거쳐 과주에 어르 기까지 경기・강원 접경지역을 건게 된 다. 건기 코스에는 국방부의 현조로 평소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민통선 구간이 포함돼 있다.

> 숙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기・강원 내 민간 숙소시

설이나 경기도의 '평화누리길 게스트 하우스'를 적절히 병행해 이뤄진다.

이밖에도 DMZ가 지난 생태·문화· 역사를 몸소 체험하는 차원에서 '전문 가 유명인사 초청 토크 콘서트', '작은 음악회', 건기구간 곳곳의 명소 및 유 적지 탐방 등의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14일에는 이화영 평화부지사 와 경기도의원 등이 참여하는 토크 콘 이날 참가자들은 출정식 이후 강원 서트를 열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서 대화를 나눔 예정이다.

> 신명성 평화협력국장은 "DMZ 155 마일을 걸으며 평화와 생명, 소통과 화 해를 소망해 보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100명의 대원들이 순조롭 게 장정을 마치고 무사히 건강한 모습 으로 귀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경기일보

'DMZ 155마일 걷기' 평화염원 첫걸음

평화동일을 염원하는 "DMZ 155" 마일 걷기" 행사가 기나긴 여정의 첫걸음을 내다뎠다.

경기도는 5일 오전 파주시 임진 각에서 비무장지대(DMZ) 일원을 걸으며 도전 정신과 인내심을 키 우고 평화통일을 열원하는 'DMZ 155마일 걷기' 행사의 출정식을 가겠다.

이날 출정식에는 신명섭 도 평 화협력국장, 유동규 경기관광공 사 사장, 박관열·유영호·민정선 경 기도의원, 건기대원 100명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DMZ 155마일 평 화의 길을 함께 걷다'를 주제로 도 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광사가 주 관한다. 생명과 평화가 숨 쉬는 DMZ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마련 됐다.

전국단위 모집에서 최종 선발 된 건기대원 100명은 건강검진 과 오리앤테이션을 거쳐 이날 15 박 16일의 일쟁을 시작했다. 참가 자들은 출정식 이후 강원도 고성 대원 100명 '임진각' 출정식 고성~파주 접경지 대장정 생태·문화·역사 체험기회

으로 이동해 걷기 일정을 시작, 오 는 20일까지 인제·양구·화천·철 원·연천을 거쳐 파주까지 경기·강 원 접정지약을 걷는다. 걷기 코스 에는 평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민통선 구간이 국방부 협조로 포 함돼 있다. DMZ가 지난 생태·문화·역사를 몸소 체합하는 차원에서 '전문 가·유명인사 초청 토크 콘서트', '작은 음악회', 걷기구간 곳곳의 명 소와 유적지 담방 등의 행사도 한 께 진행된다. 오는 14일에는 이화 영 도 평화부지사 등이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도 열린다. 김해왕기자

경기일보

2019년 08월 06일 (화)

종합 01면



'DMZ 155미일 대칭정' 파주 임진각시 출청 5일 교주시 발장리 (MZ생태구광지점심대에서 발전 'DMZ 155미일 대칭정 출정시에서 신명설 권기도 변화한국국장, 모통구 경기관공공사 사장및 견기되 용 190여 명이 충돌에 있어 원주를 다짐하며 화이템을 의치고 있다. 왕가지들은 'DMZ 155미일 명확의 공을 향약 본다'한 주제로 강영도 고성에서 출발해 언제, 충남을 가치 전한, 파주에 이로기자지 당박(5일의 대 전형인기자

중부일보

2019년 08월 06일 (화) 종합 02면

평화통일 염원 DMZ 155마일 걷기 파주 임진각 출정식 대장정 올라

비무장지대(DMZ) 일원을 걸으며 도 전 정신과 인내심을 키우고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DMZ 155마일 걷기' 행사가 5 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출정식을 시작 으로 대장정에 올랐다.

이날 출정식에는 신명섭 경기도 편화 협력국장, 유통규 경기관광공사 사장, 박관열·유영호·민경선 경기도의원, 대 원 100명 등이 참석했다.

'DMZ 155미일 평화의 길을 함께 견 다'를 주제로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 광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생명과 평화가 숨 쉬는 DMZ의 의미를 되새기 고 평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마련됐다.

전국단위 모집에서 최종 선발된 걷기 대원 100명은 건강검진과 오리엔테이션 을 거쳐 이날 15박 16일의 일정을 시작 했다. 참가자들은 출정식 이후 강원도 고성으로 이동해 걷기 일정을 시작, 오 는 20일까지 인제, 양구, 화천, 철원, 연 천울 거쳐 파주까지 경기·강원 접경지 역을 걷는다. 걷기 코스에는 평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민통선 구간이 국방부 협조로 포함돼있다.

숙박은 지역경제 활성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강원 내 민간 숙소시설이 나 경기도의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 스'몸이용한다.

DMZ가 지닌 생태·문화·역사를 몸소 체험하는 자원에서 '전문가·유명인사 초청 토크 콘서트', '작은 음악회', 걷기 구간 곳곳의 명소와 유적지 탐방 등의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조윤성기자

경기신문

경기도, 'DMZ 155마일' 새역사를 쓰다

경기도가 염천(炎天)을 뚫고 DMZ 155마일 을 걷는다. 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DMZ 155마일 평화의 길을 함께 걷다'를 주제로 20일까지 계속된 다. 접경지역을 공유하고 있는 감원도와 국 방부가 후원한다. 5일 오전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출정식에는 신명섭 도 평화협력국장과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 박관열·유영호· 민경선 도의원, 건기대원 등 100명이 참가해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졌다. '올들어 가장 더 운 날'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함 정도로 열기 가 뜨거웠다고 참가자들은 분위기를 전했다. 출정식에 이어 건기대원들은 차량을 이용해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로 이동, 15박 16일 의 대장점에 돌입했다. 인제와 양구, 화천, 철 원, 연천 등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지역을 거 쳐 다시 파주 임진각까지 자그마치 250km, 625리 길이다. 국방부 협조로 평소 접근하기 어려운 민통선 구간도 걸으니 몸과 마음 모 두 분단에서 통일까지 많은 것을 느낄 수 있 으리라 생각된다. 접경지역 지자체 최초로 마련한 행사라는 점에서 뜻은 더 깊다.

건기대원은 전국에서 공개모집한 20세이 상 65세미만의 남녀 100명으로 구성됐다. 건 강검진과 체력 테스트 등을 통해 선발했고 오리에테이션을 통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 다고는 하나 날씨가 걱정이다. 그래도 '국민 들에게 생명과 평화가 숨쉬는 DMZ의 의미 를 되재기고 평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각 인시키기 위해 마련한 행사'의 취지에 공감 한 대원들이니 믿어보자, 숙박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강원·경기도내 민 간 숙소시설이나 경기도의 '평화누리길 게스 트하우스'를 적절히 배정한다니 디테일하다. 도는 이런 평화의 분위기를 체득하며 대장정 의 길 위에 선 건기단원들에게 철원 월정리 승일어린이합창단의 작은 음악회와 염진강 주상절리, 조선시대 사당 건물터인 연천 승 의전지, 강원도 인제 편치볼 매재길 등 명소 탐방을 선물한다. 특히 대원들이 강원도 구 간에서 경기도로 넘어가는 14일에는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경기도의원 등이 함께 하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주제는 ▲한 반도 평화 정착 소남북교류 소세대공감 등 다양하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격의 없 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니 기대된다.

'분단에서 통일로, 전쟁에서 평화로 가는 새로운 DMZ의 역사'를 건기대원들이 쓰고 있다. '가지 않은 길을 가는 한걸음 한걸음' 이 모두 의미가 있다. 대원 한사람 한사람 건 강한 모습으로 임진각에서 다시 만나기를 손 모아 받다.

인천일보

2019년 08월 06일 (화) 종합 02(경기판)면



'DMZ 155마일 걷기' 대장정 첫발 뗐다 이저 열린 출정식을 시작으로 기나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DMZ 일원을 걸으며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DMZ 155마일 걷기' 행사가 5일 오전 파주 임진각 /시전제공=검기도

기호일보



5일 오전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DM2 155마일 전기' 출점식에서 전기대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원기도 제공)

'DMZ 평화의 여정' 힘찬 첫걸음

건기대원 100명 15박 16일간 접경지역 155마일 '타박타박'

경기도의 'DMZ 155마일 건기' 행사가 5일 오전 파주 임진각에서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오리엔테이 서 '전문가 유명인사 초청 토크 콘 열린출정식을 시작으로 기나긴 여 정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행사는 국민들에게 생명과 새기고 평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 게 각인시키기 위한 것으로 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

출정식에는 신명섭 도 평화협력 국장,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

경기도 파주 임진각서 출정식 장, 백관열·유영호·민정선 도의 선구간이 포함돼 있다. 원, 건기대원 100명이 참석해 안전 하고 뜻 깊은 행사가 되기를 기원

> 으로 진행되며, 전국단위로 모집 해 최종 선발된 건기대원 100명을 화·역사를 몸소 체험하는 차원에 선을 실시, 15박 16일의 대장정을 시작할 모든 준비를 마쳤다.

참가자들은 출정식 이후 강원도 평화가 숨쉬는 DMZ의 의미를 되 고성으로 이동해 걷기 일정을 시 작, 오는 20일까지 언제, 양구, 화 천, 철원, 연천을 거쳐 파주에 이르 기까지 경기 강원 접경지역을 걷게 된다.

> 걷기 코스에는 국방부의 협조로 평소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민통 다. 신기호기자 skh®kiholibo.co.kr

숙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경기+강원 내 민간 숙 소시설이나 도의 '평화누리길 게스 행사는 국방부, 강원도의 후원 트하우스'를 병행해 이뤄진다.

> 이밖에도 DMZ가 지난생태·문 서트', '작은 음악회', 걷기구간 곳 곳의 명소 및 유적지 탐밤 등의 행 사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대원들이 강원도 구간에서 경기도로 넘어가는 오는 14일에는 이화영 평화부지사, 도의원 등이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를 열어 한반 도 평화 정착과 남북교류를 주제 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예정이